

제10회 바다의 날 축하 메시지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회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 울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바다로 나아가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업이 부동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해운업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지난해 180억 달러를 넘어섰고, 우리의 항만은 세계 다섯번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 자랑스런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면서 바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와 기술개발이 한창입니다.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기술 등 청색혁명을 선도할 연구개발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양주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동·서·남해와 5대양, 남극과 북극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선진한국을 열어 가는 힘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합시다. 동북아 물류 허브, 세계 5대 해양강국의
꿈을 반드시 이뤄 나갑시다.

바다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